국별 리포트

아랍에미리트(UA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9

Ⅳ. 국제신인도 11

Ⅴ.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84천 km^2	G D P	3,019억 달러 (2010년)
인 구	5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60,395 달러 (2010년)
정 치 체 제	7개 토후국 연방 절대군주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UAE Dirham (Dh)
대 외 정 책	친서방	환 율(달러당)	3.67 (달러 페그제)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후자이라(Fujairah), 라스알카이마(Ras al-Khaimah), 샤르자(Sharjah), 움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7개 토후국은 각기 독립된 국가로서 독자적인 관할구역 및 역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재정정책, 법률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

□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이 중동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나, UAE는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의 통치 하에 정치·사회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UAE는 세계 6위의 원유 (매장량 978억 배럴) 및 세계 7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213조 ft^3)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정부는 건설, 유통,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11월에 두바이월드의 6개월 채무상환유예 요청으로 촉발된 두바이 사태는 2010년 9월에 채무재조정이 완료되고, 두바이 정부가 2010년 10월과 2011년 6월에 연이어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 UAE는 우리의 중동지역 제1위의 수출대상국이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제2위의 원유 수입대상국이며,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국 중 제2위 국가임. 또한 한전 컨소시엄이 2009년 12월에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2011년에는 매장량 10억 배럴 이상의 아부다비 유전개발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유가상승으로 경제성장 회복

○ UAE는 GDP의 40%, 수출의 30%,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경제성장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각 토후국이 UAE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부다비가 61%, 두바이가 30%, 나머지 5개 토후국이 9%임.

○ 2006~08년에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건설업 및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비석유산업의 고성장,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연 5% 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 두바이 사태 등의 영향으로 3.2%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연도별 원유생산량 (백만 b/d) : 2.6(2006) → 2.5(2007) → 2.6(2008) → 2.3(2009) → 2.4(2010) → 2.7(2011)

*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9년에 배럴당 61.39달러로 2008년의 94.34 달러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12월 20일에 89.34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평균 78.06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경 제 성 장 률	8.8	6.5	5.3	-3.2	3.2
재 정 수 지 / G D P	18.1	15.4	16.5	-12.6	-1.3
소비자물가상승률	9.3	11.1	12.3	1.6	0.9

자료: IMF, EIU.

○ 그러나 2010년에는 확대 재정정책의 지속, 아부다비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3.2%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개발 프로젝트: 캐피탈 시티 (Capital City, 400억 달러), 야스섬 (Yas Island, 370억 달러), 사디얏섬 (Saadiyat Island, 275억 달러), 마스다르 시티 (Masdar City, 220억 달러), 알-라하 비치 (Al Raha Beach, 150억 달러) 등

○ 2011년에도 유가 상승과 원유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연평균 4~5% 수준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크게 둔화

○ 2006~08년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수입물가 상승, 민간부문의 임금인상,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연간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위기와 두바이 사태로 인하여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크게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낮은 1%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1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임.

□ 재정수지는 2009~10년 적자에서 2011년에 흑자전환 전망

○ 2006~08년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생산량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매년 GDP 대비 15%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석유 및 비석유부문에서 공히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GDP의 12.6% 수준의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0년에도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지속과 보조금 지급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유가 상승 등으로 적자 폭은 GDP의 1%대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GDP 대비 6%대로 흑자전환 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정부가 관광업, 금융업 등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산업이 GDP의 40%, 수출의 30%,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및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전력수요 급증으로 공급능력 확충이 정부과제

○ 건설 붐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알루미늄, 석유화학 등)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연평균 6%대의 높은 인구증가율 등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음.

○ 전력 수요는 2007년 13,117MW 수준에서 2010년 21,548MW, 2015년 32,814MW, 202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40,858MW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력 공급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복합화력발전에서 벗어나 태양열,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고심하고 있음.

- 아부다비 정부의 마스다르 씨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 중인 100MW 태양열 발전소 건립과 2009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1,400MW급 원전 총 4기 건설 프로젝트는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계획에 따른 것임.

* 마스다르 씨티 프로젝트(Masdar City Project)는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폐기물 제로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총 사업규모가 220억 달러에 달함.

□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

○ UAE는 외국인이 인구의 약 80%(특히, 두바이의 외국인 비중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국민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집트, 이란 등의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원유의 확인매장량은 2010년 기준 세계 6위인 978억 배럴(세계 점유율 7.1%)로서, 이는 향후 100년 이상 동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규모임.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매장량과 수출 규모가 막대하여 석유산업이 지속적인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천연가스도 매장량이 세계 7위(213조 ft^3, 세계 점유율 3.2%)이며,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도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확인됨.

- 7개 토후국 중 국토의 86%,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UAE 원유 생산량의 90%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계무역기지의 이점

○ UAE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수입품의 40~70% 수준)을 하는 중계무역의 중심지로서 대표적 물류 거점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석유관련 산업, 은행업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의 3개 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율도 GCC* 공통관세율인 5%로 낮은 수준임.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며, 세계 원유 매장량의 36%,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 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서 발전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추진중

○ UAE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 분산을 위해 제조업, 금융서비스, 관광 등 비석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 과거 수년간 도로 개보수, 발전소 건설, 대형 송수관 매설, 주거시설 확대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건설업, 금융,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UAE는 비석유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투자 문호를 개방하였음. 또한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통제, 국내 판매 의무 등의 각종 규제가 없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약 30여개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인정되고, 세금이 없으며, 과실송금이 무제한 보장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3년 43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7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4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13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 금융위기 및 두바이 사태 이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지역에서 현재 49%가 상한인 외국인 소유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임.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와 중동 및 여타지역으로의 재수출 확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흑자 규모도 2005년 409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 640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하였음. 경상수지도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2006~08년 연 15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여 왔음.

- UAE의 수출구조 (2010년 기준)
·재수출(40.9%), 석유·가스(30.1%), 기타(24.1%)

- UAE의 주요 교역대상국 (2010년 기준)
·수출: 일본(17.8%), 인도(13.4%), 이란(6.8%), 한국(6.1%), 태국(5.3%)
·수입: 인도(16.9%), 중국(14.3%), 미국(7.8%), 독일(5.7%), 일본(4.9%)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축에 따른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가 420억 달러로 전년보다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82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생산량 증대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는 640억 달러, 경상수지는 2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 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지: 640억 달러(2008) → 420억 달러(2009) → 640억 달러(2010)
- 서비스수지: -338억 달러(2008) → -274억 달러(2009) → -281억 달러(2010)
- 소득수지: 39억 달러(2008) → 33억 달러(2009) → -8억 달러(2010)
- 경상이전수지: -106억 달러(2008) → -102억 달러(2009) → -114억 달러(2010)

○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원유 생산량 증가, 비석유제품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의 흑자 폭이 전년 대비 더욱 확대되고 경상수지는 GDP 대비 10%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이 비교적 풍부하고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오일머니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31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428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FDI: 128억 달러(2006) → 142억 달러(2007) → 137억 달러(2008) → 40억 달러(2009)

○ UAE는 약 7,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운용 중에 있으며, 특히 아부다비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IA)은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서 자산 규모가 6,270억 달러에 달함.

□ 외채규모는 다소 과중

○ 외채규모는 그동안 석유화학 및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10년 말 기준 GDP의 50% 수준인 1,523억 달러로 다소 과중한 편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경상수지	341	154	233	82	233
경상수지/GDP	15.4	5.9	7.4	3.0	7.7
상품수지	575	466	640	420	640
수출	1,456	1,786	2,400	1,920	2,220
수입	881	1,320	1,760	1,500	1,580
외환보유액	276	772	317	361	428
총외채잔액	758	1,124	1,406	1,500	1,523
총외채잔액/GDP	34.1	43.5	44.7	55.5	50.4
DSR	5.1	6.9	5.0	8.1	6.8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정치 안정세 지속

○ UAE는 7개 토후국이 연방정부를 구성(1971년)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를 갖추고 있음. 수도이자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지도자인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두바이의 지도자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국무총리의 통치 하에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왕족 혈통의 장기 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 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

○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예멘, 요르단, 모로코를 비롯하여 바레인, 오만 등 선진 GCC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도 잠재적 시위발생 가능 국가로 언급되고 있음.

○ 그러나 UAE는 반정부 시위의 무풍지대로서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석되고 있음.

- 타 중동 국가에 비해 국민 소득수준이 높고, 다수인 수니파가 집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약 80%)이 높아서 인근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적음.

- 또한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등 주변 이슬람 국가에 비해 이슬람의 종교적 보수 색채가 덜하며, 정보기관·군인·경찰 수뇌부가 왕실 일가로 구성되어 있어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의회와 야당 등이 없어 반정부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음.

3. 국제관계

□ 서방 및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UAE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걸프전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및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란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또한 서방국가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서방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UAE는 GCC 회원국으로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부라이미 오아시스(Buraimi Oasis), 리와 오아시스(Liwa Oasis) 및 코랄-우다이드(Khoral-Udaid) 내해(內海) 소유권을 둘러싼 아부다비-사우디아라비아 간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 또한 2009년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향후 걸프 중앙은행 소재지로 채택된 데 불만을 품고 GCC 통화동맹에서 탈퇴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상존함.

□ 이란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부상, 그러나 소유권 분쟁은 지속

○ 2007년 5월에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방문하였고, 이란은 최근 수년간 UN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두바이를 주요 무역기지로 활용하며 UAE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음.

- 2009년 기준 이란의 UAE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이란 총수입금액의 12.2%를 차지하여 UAE는 이란의 제1위 수입대상국이며, UAE의 이란 앞 재수출은 UAE 전체 재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아부 무사(Abu Musa) 등 3개섬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으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9년 11월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 요청

○ UAE는 석유화학 및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토후국 중 석유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두바이는 외부 투자자금 및 차입금에 의존하여 물류 및 관광업 육성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

- 두바이의 개발 프로젝트는 두바이 정부 소유의 3대 공기업인 두바이월드(Dubai World), 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ICD), 두바이 홀딩스(Dubai Holdings)에서 주로 진행하였음.

○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금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두바이의 국영회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결국 2009년 11월에 두바이월드 및 자회사인 나킬(Nakheel)사는 채권단에게 6개월 채무상환유예를 요청하였음.

□ 채무재조정 완료로 안정세 회복, 그러나 시장 불안감은 상존

○ 두바이 정부는 2009년 7월에 설치한 두바이 금융지원펀드(Dubai Financial Support Fund: DFSF)를 통해 두바이 공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두바이월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음.

○ 또한 2009년 12월 중순부터 두바이월드와 90여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채무상환유예 (standstill agreement) 및 채무재조정 합의를 위해 협의를 시작하였음.

- 2009년 12월 14일에 만기도래한 두바이월드 자회사 나킬의 이슬람채권(Sukuk)은 아부다비 정부의 100억 달러 지원으로 전액 상환되었음.

- 두바이 정부가 발표한 채무재조정 계획안의 내용이 채무 탕감이 아닌 만기연장을 통한 전액상환 방침이라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시장 반응은 긍정적으로 변함.

○ 2010년 5월에 채무액의 60%를 차지하는 HSBC, RBS(Royal Bank of Scotland), SC 등 주요 채권단과 채무상환 기본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전체 채권단의 99%로부터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채무재조정을 완료하였음.

- 채무재조정 금액은 총 249억 달러로, 144억 달러는 90여 개 은행에 대한 채무이고 나머지 105억 달러는 두바이 정부에 대한 채무임. 144억 달러는 시장금리 이하로 5~8년간 만기연장 후 상환하며, 나머지 105억 달러의 채무는 DFSF를 통해 출자전환함.

○ 또한 2010년 10월에는 두바이 정부가 두바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2011년 6월에도 5억 달러의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두바이도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10월 두바이 정부의 채권 발행은 모집금액의 4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의 투자금이 몰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발행금액 12억 5천만 달러 중 5억 달러는 5년 만기, 금리는 美국채(Treasury)+543bps의 조건으로, 나머지 7억 5천만 달러는 만기 10년, 금리 Treasury+527bps로 발행되었음.

- 2011년 6월의 5억 달러 채권발행 조건은 만기 10년(5년후 풋 옵션조건 포함)에 금리는 Treasury+403bps이고, 5년후 풋 옵션조건의 금리는 기준금리(mid-swaps)에 375~385bp를 더한 수준임.

- 한편, 두바이는 2011년 들어 중동지역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피난처(safe-haven status), 정치적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음.

*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s: CDS) 프리미엄은 두바이월드가 채무상환유예를 선언(2009년 11월 25일)한 직후인 2009년 11월 27일에 최고치(656bp)를 기록한 이래 2011년 6월 30일 현재 333bp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두바이 정부의 총 채무규모가 GDP 대비 100%를 상회하고 2011~12년 기간 동안 총 31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만기연장 위험(roll-over risk)에 직면하고 있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음.

□ **아부다비 정부는 필요시 두바이를 지원한다는 입장**

○ 2009년 12월 나킬사의 이슬람채권 상환자금 지원에서 나타났듯이 아부다비 정부는 두바이 사태가 UAE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두바이 정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입장임.

○ 아부다비 정부는 자산규모 6,27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을 운용하고 있어 두바이의 채무상황 악화시 두바이 정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시장평가

□ **OECD, Moody's의 국가신용등급은 각각 3등급, Aa2 유지**

○ 2009년 경제지표 악화와 두바이 사태 등의 영향으로 OECD는 2010년 4월에 UAE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종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1년 3월 평가 시에도 3등급을 유지함.

○ Moody's 등급은 2007년 7월에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된 후 2011년 2월 재평가 시에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였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0년 6월 18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2002), 이중과세방지협정(2003),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2006), 군사협력협정(2006), 문화협력협정(2007), 원자력협력협정(2009)

□ 중동지역 제1위의 수출대상국

○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1위의 수출대상국이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제2위의 원유 수입대상국임.

- 2010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약 177억 달러로 2009년 143억 달러 대비 23.6% 증가하였음.

- 수출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약 55억 달러,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LPG 등을 중심으로 약 122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국 중 제2위 국가

○ 2010년 말 누계액 기준 우리나라의 UAE 수주액은 578억 달러로 전 세계 수주총액 4,208억 달러의 13.7%를 차지하였음. 특히 2010년에는 원전 수주에 힘입어 수주액이 256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UAE에 진출한 이후 최대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음.

○ 우리나라의 한전 컨소시엄이 2009년 12월에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향후 양국간 원자력 관련 협력이 강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위의 직접투자 대상국

○ 우리나라의 대 UAE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3월 말 현재 260건, 6억 189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UAE는 예멘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위의 직접투자 대상국임(점유율 20%).

○ 주요 투자업종은 건설업(1억 8,572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1억 3,579만 달러), 부동산 및 임대업(1억 2,593만 달러), 제조업(1억 1,835만 달러) 등으로, 타 중동 국가와는 달리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4> 한-UAE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5,749	4,978	5,48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수 입	19,248	9,310	12,170	원유, 석유제품, LPG 등
합 계	24,997	14,288	17,657	-

자료: 한국무역협회.

□ 매장량 10억 배럴 이상의 아부다비 유전개발에 참여

○ 2011년 3월에 우리나라 정부는 UAE 정부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향후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아부다비 유전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해외 유전개발 사상 최대 규모임.

○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의 원유 및 가스 자주개발율을 4%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V. 종합 의견

○ 세계 6위의 원유(978억 배럴)를 보유한 자원부국 UAE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강세 및 비석유산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세를 나타내었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 두바이 사태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시현하였고, 재정수지 적자전환 및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제는 3%대의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 요청 이후 2010년 9월에 채권단의 99%로부터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채무재조정을 완료하였고 2010년 10월과 2011년 6월에 연이어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두바이도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두바이 정부의 총 채무규모가 GDP 대비 100%를 상회하고 2011~12년 기간 동안 총 31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만기연장 위험(roll-over risk)에 직면하고 있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음.

○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정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GCC 주변국 및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관계가 비교적 양호함.

책임조사역 박대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